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2월 31일 (제123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도, 과거에 마냥 취하여 살아도 안 된다. 그런 자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43:18-19).

가끔 상담을 해보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며 어깨에 힘을 주는 자가 있고, 또 ‘과거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며 자책하느라 어깨가 축 처진 자가 있다. 둘 다 부질없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이 별것 아니라고 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사도 바울이 꾀대, 곧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먼저 한 일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이전 일을 잊는 것이 새 일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야 새 삶이 있다고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과거 속에서 죄책감에 눌려 지내고 있었다.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그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운 채 그물을 던져놓고 상념에 잠기는 세월을 살았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고, ‘그렇다면 과거를 잘라내고 미래로 나가라. 내 양을 치라’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못된 과거로부터 끌어내신 것이다.

과거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나역시 주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옛것을 버려야 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애굽이 나아.’라며 과거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에 지척인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데 40년이나 걸린 것 아니겠나.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 일이 미래를 바꾼다. 2023년,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끌어내라.

# 내 운명은 내 생각과 말로 만드는 작품이다

우리는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고 우리는 그에 순종함으로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목사님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번의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모시고 온 분들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겁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

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복락의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가 나신 날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실현된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납니까, 콩이 납니

다. 자기 자식에게 ‘빌어먹을 놈, 육시탈 놈’하며 저주를 퍼부으니 자식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허구한 날,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해보세요. 반드시 갈라십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아주 딱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거울을 보며, ‘참 잘 생겼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초석아, 넌 할 수 있어.’ 하며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만 뿌립니다. 날마다 세계를 교구화하겠다고 써 붙이고 입술로 뿌렸더니 마침내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재갈을 물려 버리고, 긍정적인 말만 뿌리세요. 내 인생은 내 생각과 말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내



2023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12월 25일 KBS아레나)

조하셨다고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새 동안 해와 달과 별, 각종 동식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셋째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행된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되었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움직이건만 자유의지를 준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멸망

까?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참나무가 자라니까, 가시나무가 자라니까? 이는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당연히 콩 심으면 콩이 나고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가시나무가 자라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이 민수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만들어져간다는 겁니다.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자라서 그 인생이 되는 꼬라지가 없게 됩니

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니 새로운 그림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뿌렸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싹 씻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결단하여 일생일대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송구영신예배

2023년 12월 31일 오후 9시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KBS아레나홀(88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3:16)



# 왜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를 치는가?

왜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수난을 겪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을까요? 왜 스테반은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주리며 헐벗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전했을까요?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예수를 전하다 사자에 찢기고, 화형을 당하고, 굶주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도 헐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낯설고 물선 나라를 다니며 예수를 전할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답합니다. 틀렸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지라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요 16:17)고 말씀하셨습니다.

### 천국이나 지옥이나 선택은 네 몫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중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즉 당신이 죄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나', 예수 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히9:27).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존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수명을 다하면 옷을 벗듯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삽니다. 육신을 벗은 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릅니다. 예수님이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온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 길을 이탈하거나 애당초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된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는 말이 천국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해도, 평생 도를 닦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안 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 천국을 안 가면 가야 할 곳은 지옥뿐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뜨거운 사우나에 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있어 볼까요? 조금만 지나도 숨이 막혀 죽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지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는 안 믿고 불쌍한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다 죽은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눅16:24).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또 성경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9:47~49)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네 눈을 빼고, 세상 것을 움켜쥐네 손을 짚어버리고라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지요? 그 걸 막

문 언젠가 대구집회를 다녀오다가 구미 비행장에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었습니다. 1분 늦었다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만일 이것이 천국 문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천국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믿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이유도 이래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겠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건물에 세 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했기에 때가 되니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예약해놓은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를 전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를 막아야 합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요3:16).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며 예수를 전하느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기에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 때 비행기 표나 기차표나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둔 사람은 제시간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면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지.' 하는 사람은 티켓이 없어 고향에 못 갑니다. 천국행 티켓도 예매해야 합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비자요, 천국행 티켓이요,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이냐 영멸의 길을 택할 것이냐

언젠가 대구집회를 다녀오다가 구미 비행장에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었습니다. 1분 늦었다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만일 이것이 천국 문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천국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믿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이유도 이래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겠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건물에 세 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했기에 때가 되니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예약해놓은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를 전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를 막아야 합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요3:16).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며 예수를 전하느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며 예수를 전하느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마침내 도우시는 손길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준다. 그러나 문화란 죽음이나 사망의 절대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문화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문화가 나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온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위기 직전에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니엘을 위경에서 건지듯이 바로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막아주셨다면 다니엘은, 또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나중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느끼지 못하니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는 길로 나갈 때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안 된다고 딱 막으신다. 바로 마귀가 입을 칠 때도 다 허락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불드시키고 마귀의 손을 막으시는 것처럼, 느브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친구들을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도 미리 막지 않으시고 불길에 그들을 삼키려 할 때 불길을 막으신 것 같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최후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데 얇은 홍해로 건너 일주일 만에 광야 생활이 끝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였고,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먹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거듭 거듭 교육하신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 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푸셨으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그의 눈이 떠나지 않으시면 여기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늘 나에게 있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의지인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신기류 목사

:: 오늘의 메시지 ::

#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군인으로 퇴역한 샌더스 대령은 자신이 발명한 치킨 조리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을 돌며 수많은 식당을 찾아다녔지만 천 번 이상이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미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체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문제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에나 가보라 하지 않던가! 실패의 85%는 진짜로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해결하는가'이다. 노아는 120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통해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삭의 약속을 받아내

었다.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 또한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주님께서 이기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그리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다(눅18:27).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도전하는 것이다(잠24:16). 그리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시37:24).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실패는 포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되자!

김상욱 목사



:: To Be Succeeded ::

:: 생명의 말씀 ::

#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올봄, 새 학년이 되기 전,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 만남에 대해 미리 아이들과 기도로 준비한 터였다. 그런데 아들 담임선생님 배정을 받고 보니 아깝싸, 전 학년에 호랑이 선생님이 소문난 분이시다. 등교 첫날, 돌아온 아들의 낮빛이 어두웠다. 그날 밤, 아이는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선생님이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아이다운 순수한 기도에 한편으로는 웃음도 났다. 그런데 뒷날, 하교한 아들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며, 선생님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 친절하고 자상해지셨다는 거다. 하루 만에 달라지셨다니...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를 받으며 지낸 반 아이들은 화합도 잘되고 분위기도 좋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반이 되었다. 학업 성취도와 각종 대회 결과에서도 단연 최고의 모범반이어서 아들과 반 친구들은 지난 일 년간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는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현실에 잠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

비하신 후 반전의 역사까지 행하셨던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드린 기도를 날날이 들으시고, 제도까지 바꿔 없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아이들을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감사했다.

목사님은 이번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잃은 자는 실패 없는 총과 빈 지갑을 갖고 품잡는 자'라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신신당부하셨다.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총을 쏘아 적을 진멸할 수 있는 법, 다시 말해 영육 간에 늘 준비되어 부족함 없이 승리할 수 있는 특단의 비결인 것이다. 왜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으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날날이 주님 앞에 아뢰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 하나님 없는 인생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 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14:1). 한 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을 보호해 줄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어리석은 자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롭게, 행

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망가지고 말았다. 언제 회복이 가능했었나?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삶'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통제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의 현실이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시14:3) 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자. 아무리 현대사회가 첨단 문명을 누리지만,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잠9:10)임을 아는 자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며 2024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임택함 목사

:: 중국에서 온 편지 ::

:: 신앙에세이 ::

#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난 추계산상집회 때 총회장 목사님은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목사님은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세대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하셨다.

성경에 쉬지 말라고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서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쫓아내신 후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살펴보자. 예수님은 습관 따라 저녁이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겹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기도를 돕는데도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은 처음 예수 믿고 불땀던 열정이 지금도 끓어 넘치고 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이 예수중심

교회를 문제없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눈에 띄게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는 글을 써놓으셨다. 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고 약속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다고 꾸짖는, 총회장 목사님의 폐부에서 나온 통탄의 메시지인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문구는 우리 교단의 색깔, 그 대로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맞은 혼란한 시대다.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거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역대급 소식들이다. 과연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가?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때가 때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들림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누군가 앞장서서 기도의 불을 붙일 때가 왔다.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본을 보인 것처럼, 능력 받은 것처럼, 귀신 쫓은 것처럼, 병을 고친 것처럼, 소경,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추계산상집회 영상을 보고 과도처럼 몰려온다.

총회장 목사님처럼 나도 하루에 평균 다

섯 시간 이상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려고 기도 에 방해되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했다. 요사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종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면 누가 찾겠는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 나서고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목사가 인간의 수준에 머문다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능력으로 전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드러나야 전해질 수 있다. 절대 다른 도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잃으면 다 잃는다. 저수지의 넘실거리던 물이 다 빠져나가면 물고기도 죽고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그래서 저수지의 목적은 물을 채우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도 성령 충만이다. 처음 성령을 받고 방언하면서 그걸 잃어버릴까, 혹시 이튿날이면 안 될까 봐 이불속에서도 "탈탈라" 하던 그 시절이 아마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이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아침저녁으로 외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한 해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중국 연길예수중심교회  
베드로(리동일)목사

# 지난 3년, 앞으로 3년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혈압 등 여러 수치들이 안 좋게 나와 내과 상담을 받았다. 약을 처방받고 와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의 건강 상태는 최근 며칠, 몇 개월로 인한 것이 아닌 지난 3년간 나의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람들이 며칠 운동 좀 했다고, 식습관 좀 개선했다고 건강이 금방 좋아졌을 거라 착각하는데, 하루아침에 수치들이 나빠지는 게 아니듯, 좋은 결과도 3년 정도는 좋은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여야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의 일상 표정이 자신의 인상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최근 며칠 미소를 짓고 다녔다고 웃는 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도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표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 크리스천으로서의 내 모습도 지난 3년간 누적된 나의 기도 생활, 예배, 말씀 묵상의 결과이리라.

2024년, 이제 또다시 새해가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앞으로의 다짐을 한다.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고, 또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당장의 결과를 좇지 않고, 3년 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6:11-12).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찬양과 경배 ::

# 일타강사 우리 목사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생 시절 입술로는 믿노라 하지만 속으론 성경과 설교는 신비주의적이고 실증적이지 않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지식과 실험 결과들을 더 신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배드리기 전 읽었던 경영학 서적 속의 한 구절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에서 토씨 하나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인간관계론의 데일 카네기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들이 설교에 녹여져 나오는 것을 보며 내가 총회장 목사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자기 계발 분야에 유명한 인물인 앤

드류 후버만이란 스탠퍼드대학교의 신경생물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강의를 통해 '감사하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버금가는 운동 효과와 신경회로에 항염증 효과를 미치는 등, 우리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 결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하기가 뭔가 비과학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그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인생의 방부제요, 항암제요, 성장촉진제'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에서 감

사하기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속 진리의 말씀뿐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와 세상 지식들이 더해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농축역기스입니다.

지금도 대학생 시절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을 좇아 밖에서 헤매지 말고, 성경을 총론 교과서 삼고, 세상의 책들을 각론 교과서 삼아 일타강사 이초석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영과 혼을 두루 성장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전호정  
rockerjhj@naver.com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명품은 재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다  
매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봉우**